

전사적 안전관리와 경영과의 상관관계

1. 서 언

1. 경영과 안전

오늘날 기업은 생산활동에 있어서 노동력의 유지 및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여 고용안정은 물론 노사관계의 안정 및 재해예방을 포함한 근로조건향상 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데 근대사회에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가지며 한편 사회는 기업목표인 사회성 및 사회복지에 대한 공헌도에 의해서 기업을 평가하려고 한다. 그러므로 기업은 그와 같은 사회이념에 따라 목표를 정하고 건전한 기업활동을 계속해야 될 것이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사는 보람을 갖고 일하게 된다면 스스로 건강하고 밝고 명랑한 직장이 확립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인간은 인공적 환경인 기업작업장에 있어서도 그 외적인 조건인 특수한 지식과 합리적인 작업행동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것은 안전제일이 절대로 필요하며 안전확보가 무엇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현실은 산업의 고도화와 다양화에 따른 안전조직, 안전시설, 안전시책마저 뒤따르지 못하고 또한 안전의식조차 없으므로 한심한 상황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인간에게 주는 재해에 대해서는 “인간이 개인으로서 혹은 집단으로서 시간의 추이 상에 어떤 의도를 수행하려고 하는 행동과정에 있어서 우발적이면

서도 인간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일시적 및 영구적으로 그 행동을 정지시켜 버리는 것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사고란 “의무활동의 능률을 저하시킨 바람직하지 않은 사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에는 안전관리의 일 가운데 발생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시간, 노동력, 금전 등에 관해서 손실을 가져오게 하지만 인간에게 실제의 상해를 미치는 일이 없는 것들을 포함한다.

그리고 산업재해의 정의는 “직장에 존재하는 에너지가 통제자의 의지에 반해서 폭주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노동재해는 “외부의 에너지가 근로자의 신체에 충돌작용해서 근로자의 생명기능 혹은 노동능력을 감퇴시키는 현상”으로 정의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의 중요성

안전관리란 인사관리의 일환으로서 기업에 있어서 이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인간존중의 정신을 이념으로 사업장의 노동재해의 요인을 파악하여 그것을 배제하며 노동재해의 방지를 도모하여 무사고로 일하는 보람이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내는 조직적, 합리적, 과학적인 시책인 것이다. 안전관리의 요점은 교육, 기술, 독려로서 이것이 항상 반복되는데 그 의의가 있다.

안전관리는 모든 생산활동의 기본이므로 기업의

변영을 위한 틀로서 인류생활에 활용할만한 자제가 없다면 오늘날과 같은 복잡한 환경 속에서는 기업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안전은 경영관리의 지표로서 그 내용을 들면 다음과 같다.

가. 안전은 경영의 인도적 기본문제

인간은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욕구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며 건강한 신체는 근로자의 생활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수단이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영자는 재해를 방지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나. 생산과 안전은 동일체

생산과 안전 양자를 따로따로 분리시킬 경우 경영은 존재할 수 없으며 이 때 안전이 가장 첫째로 우선된다.

다. 안전의 기법은 생산의 합리화 기법과 일치

작업공정의 낭비를 덜고 간소화하며 정리정돈에 의한 작업환경의 정비와 작업의 위험방지는 근로자를 안심시켜 일하게 한다.

라. 인간관계의 향상

재해감소는 결과적으로 합리적 노사관계를 가져온다.

마. 안전은 재해에 따른 경영손실을 예방한다.

이상에서처럼 인간관계의 체계를 생각하면 기업 안전상의 문제의 관할은 조직으로서 하나로 종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안전관리는 물적, 인적관리이므로 인사관리만으로는 충분치 못하다.

경영자의 재해예방의 관리책임을 들면 기계, 설비, 치공구나 환경 등의 결함이 있는 불안전상태에 따르는 재해는 일반적으로 경영자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제반 조치를 취하여 안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대사회에 있어서 과학과 기술의 발전과 함께 특히 산업안전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산업재해, 특히 노동재해를 예방하고 인간의 항구적인 복지의 향상을 어디까지나 확보하고 이것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실현하는 노력과 제활동의 전부를 산업안전이라고 해도 좋다.

II. 안전개념의 재정립

1. 재정립 배경

지금까지 안전이라는 의미는 “사고가 나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종전의 단순한 보전적 차원에서 벗어나야 할 때라고 생각되며 그 새로운 개념은 “경영상의 손실을 미리 막기 위해서이다”라는 보다 적극적인 개념으로 발전시켜 사고가 일어날 것에 대비하여 작업장 내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그와 같은 요소를 제거시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왜 안전에 대한 개념이나 관념을 새로이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가장 중요한 원인은 제조방식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종전의 육체노동에서 기계화로, 또 자동화가 됨으로 인해 사고발생시점과 장소의 예측이 점점 어려워진다는 점이다. 그리고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기술환경의 변화도 기업의 안전관리에 대해 재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기업의 새롭고도 다양한 기계도입은 기업으로 하여금 새로운 기술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안전관리를 요구하고 있으며 그에 맞는 체제로 바꾸지 않으면 귀중한 생명에 위협이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2. 안전책임과 재해손실예방

기업이 부담해야 할 안전책임은 여러 가지로 고려될 수 있는데 먼저 광범위한 의미로 본다면 간접적으로 지니는 사회적 안전책임이다. 사회는 여러 집

단을 하위에 두고 있는데 기업도 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기업의 안전 소홀이 사회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서는 곤란하다. 따라서 생산을 행하는데 있어서도 안전과 관련된 각종 기준은 사회가 요구하는 여러 가지 조건에 맞추어져야 한다. 특히 위험성이 수반되는 제조공정을 포함하는 기업집단은 기업 자체의 이해득실을 따지기 전에 사회에서 수용할 수 있는 안전수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 왜냐하면 사회구성원인 근로자에게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경영자는 생산된 제품의 안전성과 근로자들의 인명존중이라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인식해야 한다. 이는 “기업안전”이 곧 “사회안전”이라는 개념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

3. 안전관리와 품질향상

현장에서 무재해가 지속되면 일하는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따라서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려는 근로자들의 욕구는 더욱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해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러면 품질향상도 되고 생산성도 높아진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의 안전이 그렇듯이 일은 필드(Field) 즉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경적응이 상당히 중요하다. 근로자들은 애사심을 갖고 작업에 임하게 될 경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도 높여 준다. 아울러 개인 보호장구를 근로자가 구비하여 가지고 다니면서 작업을 하면 생산절감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첫째, 자율적인 안전관리이다. 자신의 신체 중요성을 모두가 자각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안전을 확립하는 것이다.

둘째, 확인·점검·개선 추진이다. 탁상공론식의 계획만 수립하고 지시하는 것이 아닌, 현장에서의 행동을 통해 점검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의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다.

셋째, 쾌적한 작업현장의 구현이다. 깨끗하게 정

리 및 정돈된 작업장은 안전의 기초라는 생각 하에 항상 쾌적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매주 토요일을 정리정돈의 날로 정해 운영함과 동시에 작업전후에도 반드시 현장을 정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안전을 위한 경영자의 역할

현대의 산업사회에서는 기업간에 치열한 이윤경쟁이 벌어지면서 복잡한 기계의 조작과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의 사용으로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 및 건강에 대한 위험이 늘 도사리고 있다. 운전중의 기계와의 접촉에서부터 중량물의 취급 등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은 일상적으로 산업재해의 위협에 놓이게 되며 가스나 분진, 벤젠 등 사업장에서 취급되는 각종 화학물질들도 근로자들의 건강에 유해한 작용을 미치게 될 뿐만 아니라 직업병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도 널리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 사회는 산업화의 시작에서부터 생산제일주의가 강조되면서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일들이 다소 경시되어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위험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이 바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제이며 사업주의 역할은 이중에서도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현재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보건 정보의 제공과 적절한 작업환경의 조성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예방 의무를 사업주에게 돌리고 있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예방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기업경영활동에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기업정신을 가져야 한다.

즉 기업경영활동은 인명손실을 방지하는데 최우선을 두고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작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해예방시설에의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산업안전관계법령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 법령의 요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주가 해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내용과 근로자들의 협조 및 준수사항 등

각종 안전보건정보들을 근로자들에게 제공해야 하며 방법적으로는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 근로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경영자는 유해·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해 안전보건에 관한 금지, 경고, 지시, 안내 등을 표시한 안전보건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한편 산업현장에는 근로자의 건강에 해를 끼칠 작업이나 위험한 작업이 많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이나 면허, 경험 혹은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하도록 해야 한다. 그 대상작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작업은 압력용기, 전기설비, 보일러, 방사선취급작업, 중기사용작업, 터널내 발파작업, 금속용접, 가열작업 등 14종류이다.

둘째, 기능습득이 필요한 작업은 거푸집, 비계의 조립 혹은 해체작업, 잠수기사용 수중작업 등 4종류이다.

셋째, 경험이 필요한 작업은 동력전도장치의 청소나 주유 혹은 벨트교체작업, 롤러 사용작업 등 2종류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통해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해당 사업장을 통괄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하면서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를 지휘 및 감독해야 한다. 이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로는 우선 산업재해예방계획의 수립을 비롯해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 등이다.

이와 함께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과 유지,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의 확인 등도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한 역할이다. 그리고 경

영자는 사업장내에서 부서장들로 이루어지는 관리감독자에게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하며 위험의 방지가 특히 필요한 작업에 대해서는 그 작업의 관리감독자를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안전업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III. 안전불감증 근절

1. 안전불감증의 발생원인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정부, 사회, 기업, 개인 등 모든 구성원의 안전에 대한 의식과 수준은 좀 나아진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경영자를 비롯하여 근로자들에 이르기까지 안전에 대한 사고방식이 많이 좋아진 것도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래서 산업재해율과 손실액 등이 지속적인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외국과 비교하면 산업안전과 관련하여 상대적으로 불리한 각종 통계 및 지표는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던져준다. 일부 산업현장에서는 아직도 안전이라는 단어와 대면하게 되면 안전의 이미지는 긍정적이라기 보다는 부정적인 면을 먼저 연상되게 된다.

그래서 안전이란 귀찮은 것이고, 생각하기 싫으며, 무관심하고 싶은 소위 '안전불감증'이 생기는 것이다. 그 외에 안전수칙을 모두 지킬 경우 생산은 언제 할 것인가, 안전은 시간이 남을 때나 하는 것 등이라는 생각을 떠올리는 것도 안전불감증을 초래하는 중요 원인이다. 사실상 안전에 대한 정의를 내릴 때 사고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정립한다. 그래서 안전은 사고 없는 상태라는 것으로 인식하여 결국 사고만 없으면 안전의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해석하고 나아가 지금 당장 사고만 발생되지 않으면 안전관리는 잘되고 있으며 안심해도 좋다는 식의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사고란 이

미 결과를 나타내는 의미이기 때문에 사고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사후관리이지 사전관리는 아니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안전관리의 주요 목적은 사전관리 즉 예방관리차원이 되어야 하므로 안전한 상태는 ‘위험이 없는 상태’로 바꾸고 따라서 안전불감증을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전혀 사고유발의 징후가 없는 상태로 바뀌어져야 할 것이다.

2. 안전불감증의 확산정도

우리 국민 모두는 안전불감증에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금이라도 기억만 하면 되살아날 만큼 큰 사고였고 당시에 끔찍했던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어느새 잊고는 또 다시 ‘대충 대충해’라는 식의 안일한 사고방식에 젖어있다. 사고가 났을 때는 온통 나라가 떠들썩거리며 난리법석을 피우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지나가 버리고 또 다른 그리고 더 큰 사고를 맞곤 한다. 이런 식의 되풀이하는 개인적으로 손실을 입을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이다. 자꾸 사고가 반복되어 발생하는 이유는 사회전반에 걸쳐 안전에 대한 감각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주의를 조금만 했더라면, 그 때 그것을 미리 치워두었더라면, 점검을 다시 한번 더 했더라면”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지만 일단 발생한 사고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이런 것을 예방하려면 기업일 경우 사고로 인한 무한책임을 질 수밖에 없게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대형사고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아직도 우리 사회 전반에 흐르는 안전의식의 부족 즉 안전불감증이 뿌리뽑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경제성장만을 최고 목표로 생각하고 다른 것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지난 30여 년간 ‘경제성장 제일주의’가 빚어낸 결과이다. 그래서 눈에 빨리 보이는 성장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왔고 그런 휴유증이 지금에야 나타나는 것이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의 가치관이 온 사회를 지배하

게 된 것을 우리는 반성해야 한다. 경제성장의 논리 앞에서 모든 것이 정당화되었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중심이 되어야 할 인간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었다. 우리는 지상최대의 목표인 수출달성에 치중하였지만 빛나는 영광 뒤에 보이지 않는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지금은 늦었지만 경제적인 수치가 인간성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되어야 할 때이다. 사람의 안전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멀쩡하던 다리가, 튼튼하다고 생각되던 백화점이, 전혀 이상이 없으리라고 생각되던 가스관이 그렇게 쉽게 허물어지거나 폭발하지 않았을 것이다. 안전불감증이 불식된 안전문화는 가치관의 문제이다.

이는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범국민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하고 개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 모두의 문제이기도 하다.

IV. 안전정책과 재해감소

1. 작업재해의 감소방안

가. 현장별 목표관리

K사는 '96년초에 경영목표의 최우선을 ‘재해를 낮추기’에 두었다. 전체 현장소장이 참석하여 다짐대회를 갖고 현장별로 목표재해율을 부여하는 등 철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지난해는 재해율 0.3%를 달성하여 당초 목표인 0.5%를 초과 달성했다. 이처럼 안전관리분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이유는 독창적인 안전관리 기법을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는 것과 철저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실천해 온데 있다. 예컨대 안전지도 점검만을 편성하여 미비한 안전시설의 보완, 불안정한 작업방법의 개선, 개인보호구의 철저한 착용, 현장정리정돈 등 각 현장마다 적어도 월 1회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중대재해가 발생한 현

장에 대해서는 소장이하 담당자들에게 대해 징계 등 인사상의 불이익을 가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반면 안전관리 우수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신상필벌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나. 삼심일행의 운동

B사는 재해율 제로(0) 포인트 달성을 위하여 ‘안전장구 착용후 행동’, ‘안전시설물 설치후 행동’, ‘정리·정돈 후 행동’ 등 삼심일행운동을 적극 실천해 오고 있다. 재해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추락, 낙하 등 재래형 중대재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형틀, 철근 등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공사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무재해 안전사업장의 구현에 적극적이다. 특히 분기별로 중점목표를 설정하여 제1분기에는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제2분기에는 추락 및 낙하 등의 재해예방을, 제3분기에는 투입장비의 안전관리를, 제4분기에는 동절기 안전사고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B사는 안전관리 책임전담제, 안전순회반 운영, 산재추방위원회, 무재해포상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다. 인간존중의 경영

L사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인간존중의 경영에 충실할 경우 중대재해가 한 건도 발생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 2개월에 한번씩 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경영자가 직접 주재하면서 안전보건관리문제를 협의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다. L사의 안전관리활동은 크게 상벌제도, 무재해운동, 안전교육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매년 정기적으로 공사현장의 안전관리활동을 평가하여 안전관리 우수소장 및 안전관리자를 선정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고 있으며 협력업체도 우수업체로 선정되면 공사수의계약을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고 있다. 무재해운동과 관련하여 협력업체별, 사업본부별로 안전목표를 부여하고 이를 달성할 경우 포상과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으며 또한 안전관련

제안제도를 운영하여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도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근로자의 삶의 질적 향상은 건강권과 생명이 보호될 때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의 안전을 생각지 않는 경영은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 경영자의 철학이기도 하다.

라. 겹겹이 안전운동

S사는 인간존중 이념에다 자동안전장치(Fail Safe)개념을 적용시킨 겹겹이 안전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본사에 두고 매 분기마다 회의를 열어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협의 및 해결방법을 논의한다. 그 결과 산재발생으로 인한 손실 절감액이 2억2천6백만 원에 이르고 또 안전관리를 통한 원가절감액도 무려 25억 원에 달하는데 이는 매출액의 약 2%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외부업체의 절감액도 약 16억 원에 달해 협력업체들과 함께 안전관리를 경영에 접목시키고 있다. 이처럼 겹겹이 안전운동을 비롯한 협력업체안전관리 평정제도, 눈높이 안전지원지도 등 다양한 안전관리기법을 자체적으로 개발하여 시행해오고 있다.

마. 인명은 안전확보

H사는 도급한도액 2천1백7억 원, 국내 도급순위 61위의 중견건설업체로서 올해 재해율 0.3%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효도를 사훈으로 하고 있는 이 회사는 ‘인명은 재천’이 아니고 ‘인명은 안전확보’라는 구호로 다양한 안전관리활동을 펼치고 있다. 최고경영자 직속 하에 안전관리부를 설치하고, 최고경영자는 물론 현장소장, 공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 안전관계 책임자 전원이 참석하여 분기당 1회씩 ‘현장순회 사고방지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최고경영자와 일선 현장소장간에 안전확보를 위한 열린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최고경영자는 늘 “안전관리활동에는 한치의 느슨함도 있어서는 안되며 안전관리의 성패는 전임직원의 투철한 안전의식과 일체감 조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H사는 안전활동실적을 평가하여 인사고

과에 반영하고 또한 현장단위로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사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포상제도 중에 안전관리 우수자에게 주어지는 인센티브의 수혜 혜택 비중이 가장 크다.

2. 제도정립과 현장경영

이제 각 회사는 안전을 위하여 ‘인간중시의 경영’과 ‘최고의 품질 및 안전구현’이라는 경영방침을 정립하여 사업장 전체에 파급시킬 필요가 있다. 또 제도정립 뿐만 아니라 최고경영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고 확인하는 현장밀착경영이 안전관리에는 필수적일 것이다. 또 권역별 안전관리 팀제를 도입하거나 자신의 회사에 맞는 독창적인 안전관리기법을 운영할 필요도 있다. 특히 건설현장이 점차 대형화 및 다양화되면서 더불어 안전분야가 취약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자는 근로자와 더불어 일체감을 형성하여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자는 자신의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 많은 경영자들은 항상 “왜 사고가 없어지지 않을까, 도대체 그 원인은 무엇인가?”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지금까지 산업재해가 발생된 사례 유형 가운데서 중요한 원인을 들어보면 우선 작업방법의 불량, 책임자의 자리이탈, 안전교육의 미비, 개인보호장구 미착용 및 착용상태 불량 등이다. 그 외에도 위험방지조치 미흡, 중량물 취급에 따른 작업계획작성의 미흡, 인장강도가 부족한 와이어 로프 사용, 가설난간 안전조치 미준수, 신호방법불량, 장비운전 부주의, 관리감독 소홀, 작업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안전시설물 설치불량, 기계작업시 위험방지조치 미흡, 차량후진시 경보장치 미작동 등의 요인도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경영자는 작업현장에서 흔히 간과되거나 부주의하여 발생된 사고유형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대책을 충실히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1) C사의 협착사고

C사의 아파트공사 제1공구 현장에서 우수박스 하수관통 상수도 곡관 연결작업중 한 근로자가 웅덩이 안에 있는 양수기호스를 꺼내려고 들어갔다가 인력 인양이 어려워 굴삭기 조종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굴삭기 버킷으로 호스를 끌어올리던 중 굴삭기 조종사가 웅덩이 내부에 있는 근로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여 우수박스벽체와 버킷사이에 협착시켜 사망 사고를 냈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첫째, 작업방법의 불량으로서 인양장비가 아닌 굴삭기의 버킷을 이용하여 양수기 호스 인양작업을 실시했기 때문이다. 둘째, 신호수 즉 유도자인 작업반장의 자리이탈로서 당시 그는 재해발생 30분전에 배관공구와 자재준비 작업내용 보고 및 협의회에 참석 중이었다. 셋째, 작업반경내에 근로자가 출입한 것 때문으로서 차량기계 등에 대한 접촉장비를 충분히 하지 못하였다. 넷째, 안전교육의 미흡으로서 당시 사고를 당한 근로자는 현장에 참여한지 1개월 미만의 신규근로자였으며 안전교육 실시가 미흡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양수기 호스 인양작업을 할 경우에는 호스 선단부 로프를 이용하여 결속시키고 상부에서 끌어올리기 혹은 매달기를 하여야 한다. 또 작업현장에 유도자를 배치하고 그의 유도에 따라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며 굴삭기 작업반경은 통상 6m을 차지하기 때문에 적어도 10m 이내에는 근로자가 접근하지 않도록 철저한 통제를 행하며 기계작동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2) Y엔지니어링(주)의 실족사고

Y엔지니어링(주)은 작업현장내의 외부발코니 부위에 설치된 리프트 마스트 작업 중 근로자가 리프트를 조작하면서 하강하다 실족하여 약 18m아래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이 사고의 요인으로는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안전난간대 미설치로서 리프트 운반구 상부에 가드레일을 설치해야 하나 사고당시 가드레일을 해체하고 작업하였다. 또 작업방법의

불량으로서 리프트를 타고 운행시 운반구 내부에서 스위치를 조작하여 이동장소로 옮겨가야 하나 가드레일을 해체한 리프트 운반구 상부를 타고 하강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리프트 운반시 내부에서 조작하도록 하고 또한 그 상부에도 안전난간 즉 가드레일 및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운반구 상부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높이가 2m 이상인 리프트 운반구에서 수리 및 조정작업 시에는 반드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

(3) A토건(주)의 후진충돌사고

A토건(주)에서는 도로확장공사현장에서 도로터널내의 발파면 정리작업 중 후진하다 작업반장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여 사망케 한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신호방법 불량으로서 사망자와 운전사간의 신호방법이 부적절하였으며 운전자가 사망자의 위치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였고 후방을 확인 않고 더구나 유도자의 신호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작업한데 있다.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한 대책으로는 신호방법 수립 및 준수로서 작업소음 및 시야가 나쁜 상황에서는 의사전달이 가능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작업해야 할 것이다. 그 신호방법으로는 예컨대 무전기 및 조명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작업안전수칙의 준수로서 장비운전자는 반드시 전방 및 후방을 확인하여야 하며 그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유도자의 지시에 의해서만 운전해야 한다.

(4) (주)S공업의 천장크레인 협착사고

(주)S공업 작업현장에서는 약 7톤 중량의 철판 이면용접작업을 위해 10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3톤 클램프 2개로 철판 양쪽을 결속하여 약 12m을 운반한 후 철판으로서 지면에 놓히는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는 과정에서 한 근로자가 철판 흔들림을 막기 위해 철판을 손으로 잡는 순간 한쪽 클램프가 이탈되면서 철판이 근로자 쪽으로 넘어져 협착후 사망하였다. 사고발생의 경위를 살펴보

면 재해당일 오후 4시경 취부공정 작업자 3명이 철판 한 면에 보강재 가용접작업을 시작하였으며 곧이어 가용접이 완료된 철판의 이면 용접작업을 위해 10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철판에 3톤 용량의 클램프 2개를 결속하여 수직으로 세운 후 이면용접 작업장소로 약 12m 운반하였다. 그리고 운반철판을 지면에 놓히는 작업을 하기 위해 크레인 운전자가 신호수의 지시에 따라 크레인을 조작하여 철판을 지면에 세우는 작업을 하던 중 철판의 흔들림을 보고 그것을 막기 위해 철판 한쪽을 손으로 잡는 순간 한쪽 클램프가 빠졌고 미처 피하지 못한 상태에서 철판과 작업장 바닥 사이에 두부가 협착되었다. 이 사고의 주요 원인은 먼저 부적절한 줄 걸이 작업의 미비이다. 약 7톤 중량의 운반물에 안전하중 6톤의 클램프를 사용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위험영역의 접근이다. 재해자는 크레인에 매달린 철판이 낙하되어 협착될 수 있는 위험영역에서 손으로 무리하게 철판의 흔들림을 제지하려 하였고 또한 작업계획서 미작성과 감독소홀을 들 수 있다. 당시 중량물 취급작업임에도 작업계획서를 미작성하였고 더구나 관리감독소홀로 인하여 표준안전작업이 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첫째, 중량물 줄 걸이 작업 시에는 관리감독자가 클램프 취부위치의 사전 지정 등을 통해 안전줄걸이 작업이 되도록 하고 클램프는 운반중량물의 실제용량보다 큰 용량의 클램프로 교체하여 체결력을 향상 시키도록 해야 한다. 둘째, 위험영역의 접근금지로서 운반중량물의 흔들림 저지시에는 보조작업자의 협조를 받는 등 위험영역밖의 안전한 장소에 위치한 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작업계획서 작성 및 관리감독의 철저를 기해야 한다. 즉 중량물을 취급할 경우에는 중량물의 종류, 형상, 취급방법 및 순서, 작업장소 등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당해 작업자에게 주지시키고 철저히 관리 감독하게 하는 등 표준안전작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

V. 안전혁신사례

1. 안전관리와 품질관리

현장에서 무재해가 지속되면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와 같은 안전한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작업 몰입도는 더욱 더 높아지므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 더구나 그 작업장에서 제조되는 상품의 품질은 향상되고 생산성도 높아지게 된다. 대부분의 산업현장에서 그렇듯이 실제적인 일은 필드(Field) 즉 현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전관리도 역시 현장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근로자들이 애사심을 갖고 작업에 임하게 될 경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품질수준도 높여 주게 되므로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을 발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작업자 개인은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며 그를 지휘하고 있는 안전관리책임자는 누구보다도 먼저 안전과 품질을 생각하는 '선구자적 입장'을 지녀야 한다. 특히 안전관리감독자는 안전을 위하여 철저한 지휘감독을 행함은 물론 근로자들의 사기향상을 위하여 빠른 시간 내에 판단하고 결정하고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우리의 작업현장에서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우리민족의 고질병이라고 할 수 있는 적당주의와 거저 모나지 않고 둥글둥글 살려는 생활태도를 지적할 수 있다. 따라서 적당주의와 대충주의를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즉 정해진 원칙대로 작업하고 철저히 안전관리를 하면 재해라는 적은 발붙일 곳이 없게 될 것이다.

인화되기 쉬운 각종 유류를 취급하고 있는 H사의 경영진은 인명과 재산사고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며 각급 관리자는 상해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한 환경을 마련하고 근로자에 대해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철저히 교육시킨다. 그리고 근로자도 자신과 동료의 안전 및 재산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규정을 준수하고 각자의 임무를 안전하

게 수행할 책임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업무에 수반되는 위험요소를 경계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안전업무에 임한다. H사는 혁신운동의 한 차원인 안전혁신을 통하여 현장의 정리정돈 및 청소 등은 물론 공정현장을 중심으로 재해예방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H사는 향후 '공정안전관리제도'를 조기에 실시하여 '안전사고 제로(0)화 운동'을 실시할 계획이고 무재해운동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무재해 달성 4배, 5배, 10배, 15배 목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하여 안전을 최우선적 목표로 삼고 전 사원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예방은 물론 경영수익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안전 마인드의 실천화

안전을 실천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답이 나올 수 없을 것처럼 어려운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거나 때로는 너무 쉬워 문제도 아닌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경우가 있다.

즉 안전이란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여기거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너무 당연하여 소홀해진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려운 것은 풀어볼 생각도 않고, 상식처럼 생각되는 것은 너무 쉽게 생각하여 간과하는 경우의 결함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무엇이든 지나쳐 버리는 오류를 과감히 깨뜨리고 어려운 것은 끝까지 풀어보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특히 경영자는 안전에 관한 한 관리자들과 함께 솔선 수범하여 근로자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해야 한다. 다같이 안전을 당연히 중요하게 여기는 풍토로서의 '안전문화'를 조성시켜야 한다. 다행히 인간존중의 풍토를 실현하자는 분위기인 안전문화는 산업현장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수치로도 증명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안전하고 밝은 사업장에서 일해야 한다는 경영자와 근로자의 욕구가 합치된 효과라 할 수 있다. 각 기업은

안전제일주의를 추구하려는 의미의 기업이미지를 표방하고 안전에 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일류가 되게끔 해야 한다. 특히 안전을 실현함에 있어서는 '안전 마인드(Mind)'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예컨대 경영자는 시설투자를 현재보다 좀더 확대하고 근로자는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돌보아 가면서 안전작업을 하려는 욕구가 강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건설업인 C사도 최근 안전운동을 현실적으로 강구하여 재해를 줄이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근로자의 불안정한 행동의 통제 및 규제, 근로자에 대해 3회 경고후 현장진입금지조치, 위험 예상작업시 작업중지권 발동, 사고예방에 대한 재해 예방대책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최선을 다하면 안전은 분명히 보장될 것이다. 따라서 사고를 내고 후회하기보다는 사전예방적 차원에서 열과 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VI. 결론

1. 작업현장에서 안전 확보

우리는 그 동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고들을 경험했고 그때마다 요란스럽게 떠들다가지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느냐는 식으로 기억 속에서 지워버리는 망각증세를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왔다. 우리 사회에서 안전사고를 너무 많이 경험하기 때문에 아예 안전불감증에 걸려있는 증거이다. 이처럼 우리 국민들에게 재해에 대한 안전의식 즉 안전문화에 대한 인식이 흐려져 있는 이유는 일상생활 속에서 체계적인 방재의식에 대한 인식의 결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평소에 '유비무환'이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으면서도 이는 자신과 전혀 상관없는 듯이 소홀하게 취급하고 가슴속 깊이 새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즉 유비무환이란 외적의 침입이나 국난의 대사

에만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치부하고 자신의 생활과는 관련 없는 것처럼 소홀히 취급해 온 것이 오늘의 대형사고를 일으키면서도 곧잘 뇌리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원인이 되는 것이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재에 의한 대형참사를 동반한 붕괴, 폭발 사고는 주요 구조물의 설계, 시공 및 감리상의 부실과 불량자재의 사용, 행정관청의 감독부실 및 눈감아주기, 부실한 안전진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어난 것으로서 무엇보다도 눈감고 아옹하는 임시방편 식의 고질적인 '빨리빨리병'과 비리를 눈감아주는 검은 돈이 오간 종합적인 부실이 빚어낸 참사였다는 점이 공통적 사항이다.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사고의 바탕은 원리원칙을 무시한 안전의식의 결핍이 참화를 불러왔다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인위재난관리법이 제정되어 재난발생시 구조 및 수습체계가 일원화되고 재난지휘차, 매몰자 탐지기 등을 확보하였다. 그렇지만 여전히 공사자 및 감독기관의 안전의식, 공사현장의 부실시공관행은 별로 나아진 것이 없으며 또한 대형참사가 발생되면 각종 안전관리대책을 내놓고 관련제도와 법령을 고치고 관련자를 엄중히 처벌하는 등 법석을 떨다가도 정작 하고비를 넘기고 나면 까맣게 잊곤 한다. 안전불감증이 심화된 증거는 작업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안전모나 안전장구를 벗는 일이 많으며 무더운 여름철에는 아예 작업복 상의까지 벗어버리는 것이다. 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많겠지만 특히 관리감독자의 안전에 대한 안일한 자세 즉 안전불감증은 더 큰 문제이다. 안전교육을 할 때는 '대충대충', 관리 감독할 때도 '대강대강'은 반드시 사고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각종 행사나 캠페인 등의 활동만으로는 본질적으로 안전을 생활화하기에는 어렵다. 각종 사고는 한순간의 방심하에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고 개개인 모두가 생명의 존엄성과 고귀함을 명심하여 단 한 건의 사고나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근로자들은 재해가 발생되면 자신의 불행이고 가정과 동료

의 행복까지 빼앗아간다는 것을 알고 경영자는 안전 보건규칙의 준수 등 무재해를 위해 안전불감증을 없애야 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종업원들로 하여금 자신이 맡고 있는 업무활동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안전확보, 건강유지 및 증진,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등을 위해 규정해 놓은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이다. 그런데 이런 좋은 의미의 내용인 안전 및 보건관련법의 내용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멀리하고 있는 사실은 안전이란 우리에게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더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오늘날 많은 기업들은 일류기업으로 나아가기를 희망한다. 그래서 여러 가지 경영기법 및 경영수단을 동원하고 때로는 경영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선진기업 혹은 일류기업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종전의 기업평가요소인 자산액, 매출액, 종업원수의 측면보다는 재해방지율감소, 대외신용도증가, 불량감소율 등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해야 한다. 더불어 안전은 총체적 종합기술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분야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알고 있거나 체득한 안전지식을 서로 교환해서 전 부서가 발전 지향적이게 해야 한다. 복잡한 사회가 될수록 사고는 다양해지고 대형화되어 피해도 확대되어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시도 안전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안전선진국에서는 기업안전과 더불어 사회안전을 추구하는 등 '밝은 미래'를 가꾸겠다는 취지인 안전의 긍정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여념이 없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아직도 근로자인원 대비 재해건수를 계산하는 식의 재해발생율을 강조하여 안전의식을 고조시키려는 현실은 근로자에게 사고와 같은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전율, 사전평가, 공정안전관리 등으로 안전의 평가척도기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2. 품질 경영과 부합된 안전관리 추진

안전을 평가하는 기준이 긍정적이어야 하는데 그것은 품질관리와도 관련성이 있다. 최근 우리 나라는 물론 각국 기업에서 강조하고 있는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법중의 하나인 전사적 품질경영(TQM : Total Quality Management)은 안전을 제고시키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전사적 품질경영은 지난 수십 년간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강조되어온 경영이념중의 하나로서 '모든 것을 지속적으로 개선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고 불량품 없는 생산을 추구하는 것'으로 정의가 내려진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제한된 자원으로 적절한 시기에 보다 우수한 수준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며 이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는 기업내 산업안전 및 보건전문가들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제고시킴으로써 하는 영역이 확보되어야 한다. 최근 우리 나라의 경우에도 근로시간단축이라는 전반적 추세에 따라 단위시간당 생산성의 제고가 요청되고 있다. 작업시간이 너무 길거나 근무시간의 배치가 부적절하다면 일반적으로 건강과 안전, 피로와 과로, 그리고 근로생활의 질적 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로 인한 제조작업의 중단횟수를 줄임으로써 작업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간 우리는 산업재해예방사업의 중요성을 막연히 기업의 인도주의적 책무에 두거나 산업재해와 경제적 손실비용이라는 단순차원에서 다루어 온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사전예방보다는 사후보상이 오히려 경제적이라는 사고방식에 젖어 자연히 시설개선의 노력에는 소극적이었음이 사실이다. 다행히 최근에 와서는 적지 않은 기업이 안전시설개선투자액을 늘리고 작업공정을 개선함으로써 생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1984년에 설립된 M사는 빌딩 등에 사용되는 일반구조용 강관(열연 및 열연아연도), 구조용 빅강구조관(냉연 및 냉연아연도), 일반구조용 각형강관, 단관비계강관, 강관지주 등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이 회사의 경영자는 인간존엄사상에 입각하여 산업재

해란 '근로자 자신은 물론 가정의 불행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나 회사적으로 보아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원천'임을 깨닫고 기업구성원 모두가 단합하여 산업재해를 추방하자는 자율안전을 근간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자는 사고가 나기 전에 미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기해야 하는 것을 경영의 제일지표로 삼고 있으며 유해 및 위험작업환경을 자율적으로 점점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발생요인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무재해운동개시를 선포한 후 우수 부서에 대해서는 무재해 시상을 실시하는 제도를 실시하여 무재해직장의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근로자 측에서도 산업재해로부터 자신은 물론 동료까지 보호하겠다는 정신아래 무재해운동에 적극 참여하고, 산업재해예방에 앞장서며, 스스로 작업개시전에 안전점검을 실시하며,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산업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안전사고란 어느 직무 및 작업공정에서든 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업무에 임하는 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언제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는 주의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상은 안전의식이 다른 쓸데없는 생각에 의해 제2선으로 물러난다는데 문제가 있다. 예컨대 누구나 가정문제, 건강문제 혹은 경제적 문제 등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들에 의해서 안전의식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M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산업안전위원회의 구성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법을 준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위원회를 최대한 활용하여 산업재해율을 종전보다 약 50% 정도 감소시키고 있다. 경영자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 확고한 의지와 실천이 있어야 한다. 즉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를 위해서 경영자는 근로자의 고용과 동시에 안전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근로자 역시 본인 스스로 신체를 보존해야 하며, 정책적인 면으로는 그들의 안전관리 및 건강보호활동에 필요한 보조적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설새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보면 그렇지 못한 기업이 많은 것을 여실히 나타내 주고 있다. 다시 한번 더 경영자는 물론 근로자도 안전과 건강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원점에서부터 확고히 정립하고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산업재해 대처방안

어떤 제조업이든 안전을 위해서는 구매, 제조, 검사 등 전 부서로 하여금 안전활동에 참여케 하고 소기의 경영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안전활동 및 안전실적 평가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또 인사고과에 안전실적을 반영할 것이 필요한데 미국의 어느 제조업은 인사고과점수의 약 25%이상을 안전활동과 안전실적에 배점을 두고 있다. 특히 안전에 큰 기여를 한 근로자에게 경제적 인센티브를 줄 경우 그 몇 배의 성과를 기업에 가져다 줄 것이다. 경영전략의 주요 개념 중에 '경험효과'라는 것이 있다. 예컨대 선임사원이 신입사원보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이유는 그만큼 많은 경험을 축적하기 때문이다. 즉 기업 내에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비용도 저하됨을 의미하며 그것은 제조뿐만 아니라 안전관리, 판매관리, 기술개발 등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적용될 것이다. 특히 기업이 지속적 발전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인간존중이념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안전을 이해하고 개방화, 자율화 시대의 생존전략차원에서 안전을 기업경영의 제일전략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재해 없는 기업경영을 위해서는 먼저 안전의 경영이념에서 출발하여, 근로자의 작업환경개선 및 안전의식 등으로 이어지고, 생산성 향상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결국 안전경영을 할 경우 기업이익은 물론 경영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각 제조업의 여건에 맞는 안전관리 방식 및 투자를 통하여 산업재해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이다. 